仁祖 및 孝宗實錄字의 刻字考*

A Study on the Engraving of Wooden Types for the Printing of Injo-Sillok and the Hyojong-Sillok

김 상 호 (Kim, Sang-Ho)**

◁ 목 차 ▷

1. 緖 言
2. 刻字의 要因
 2.1 木活字의 刓缺
 2.2 다수의 均字板 사용
3. 刻字의 規模
 3.1 黃楊木과 自作板의 進排量
 3.2 刻字匠의 人員
4. 結 語
<참고문헌>

<초 록>

본 연구는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인조실록자와 효종실록자의 각자 요인과 그 규모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다. 실록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균자판을 사용하며, 그런 이유로 동일한 글자의 복자가 다량으로 소용되었다. 그리고 양대 실록을 인출할 당시에는 기존 활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자의 수요가 컸다. 균자장은 대부분 교서관에 소속된 공장들이었으며, 여기에 일부 관상감 소속 및 외방의 장인이 포함되었다. 양대 실록자의 각자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수의 인원보다 각자의 재료인 황양목이나 자작판의 사용량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대 실록을 간행할 때에 많은 인원의 각수가 동원되었지만, 소수의 교서관 소속의 공장을 제외하고, 외방의 각수는 사실 회차를 두고 따로따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황양목 및 자작판과 같은 각자용 목재는 이때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 양이 사용되어 당시 각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要語: 실록, 각수, 의궤, 황양목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4년 3월 5일 최초심사일: 2014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20일

www.kci.go.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rimary factors and the scale of the wooden types which had been engraved to print the Injo-sillok and Hyojong-sillok. Many types were necessary to print book at once for saving the printing time because the sillok was printed using a lot of typesetting plates, generally. Basically because of the lack and abrasion of existing types, the demands for making supplementary wooden types were increased. The great part of typesetting craftmen belonged to Kyoseogwan and the rest of them belonged to Kwansangkam, etc. To recognize the exact number of types, we need to calculate the amount of woods used to make the types more than the number of engravers who were mobilized from countries in rotation. Boxwood tree and birch were main timber to make the wooden types. Usually the former was provided from Kangwondo, the latter was supplied by Kyoseogwan anytime if necessary.

Key words: sillok, engravers, uigwe, boxwood tree

www.kci.go.kr

1. 緖 言

實錄字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歷代實錄와 그 뒤 편찬된 宣祖實錄, 그리고 仁祖實錄과 孝宗實錄을 인출하기 위해 새로 만든 목활자를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仁祖實錄은 孝宗 3년(1652) 2월에 그 인쇄가 시작되어 이듬해 5월에 그 일이 마무리 되었으며, 孝宗實錄은 顯宗 1년(1660) 8월에 그 인쇄가 시작되어 이듬해 1월에 그 일이 마무리 되었다. 이때 사용된 목활자를 따로 일컬어 仁祖實錄字, 孝宗實錄字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목활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성과는 금속활자에 미치지 못한다. 기록이 부족한 것이 한 이유이다. 그런데 이 實錄字는 해당 儀軌에 그것의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특정한 활자뿐만 아니라 목활자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특징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儀軌의 그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千惠鳳 敎授는 仁祖實錄이 여러 道에서 黃楊木을 많이 가져오게 하고, 또한 刻手들도 여러 곳에서 많이 징용하여 대대적으로 만든 목활자로 찍은 것이라는 사실 등을 밝힌 바 있다.[1)]

仁祖實錄字와 孝宗實錄字가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實錄을 간행할 때 주된 활자로 쓰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의 진행와중에 단순히 補字用으로써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특별히 仁祖 및 孝宗實錄의 儀軌에서 목활자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다. 이는 당시 활자의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儀軌의 均字板, 刻字用 木材의 進排, 刻手의 동원 등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補字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刻字의 규모는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2006), 260.

www.kci.go.kr

2. 刻字의 要因

2.1 木活字의 刓缺

顯宗實錄은 洛東契라는 사사단체가 만들어 사용하던 금속활자 35,830자를 구득하고, 여기에 새로 주조한 활자 40,825자를 더해서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때에도 소수의 목활자의 補字가 만들어졌을 것이나, 그 수는 알 수 없다.

純祖實錄을 간행할 때에 實錄廳은 우선 奎章閣과 兵曹, 衛將所, 校書館 등에 甘結을 내어 奎章閣에 보관되어 있는 實錄鑄字를 옮기는데 필요한 架子 10部와 衛軍 20명, 擔軍 4명, 紅木袱 10件을 본청에 대령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서 實錄鑄字란 顯宗實錄字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儀軌의 기록을 보면, 實錄廳이 純祖實錄의 간행을 마치고 나서 舊鑄字 2,800개와 新造木字 17,200개를 校書館에 둔 것으로 나온다.[3] 34권 36책에 이르는 거질의 實錄을 그것도 다수의 印版을 사용하면서 단지 2만자의 활자로 인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奎章閣에서 가져오도록 한 實錄鑄字는 인출이 끝난 다음 다시 奎章閣으로 돌려보냈고, 단지 補字用으로 새로 만든 목활자 17,200개를 그 출처가 본시 校書館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舊鑄字 2,800자와 함께 校書館에 보냈으리라 판단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때 목활자의 補字가 17,200개나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동원된 刻手의 인원, 그리고 사역기간을 감안하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듯하다.[4]

기존의 활자를 가져다 쓴 것은 仁祖實錄과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에 實錄廳은 校書館에 甘結을 내어 實錄 인출에 소용되는 활자를 무뎌진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상청하도록 요구하였다.[5]

---

2) 千惠鳳(2006), 371.

3) 「純宗大王實錄儀軌」 丁酉 10월 일. 甘結 奎章閣所在 實錄鑄字移來時 架子十部 衛軍二十名 擔軍四名 紅木袱十件等 待于本廳爲旀 移來時守欌諸員嶺納事 및 印役諸具 참고.

4) 刻手 인원은 10명, 사역기간은 6개월 정도다.

www.kci.go.kr

그리고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에는 校書館에 甘結을 내어 닳아빠진 것을 제외하고 인출에 쓸 활자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訓練都監에도 移文을 내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자를 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6]

이후 수장들로 하여금 해당 목활자를 일일이 점검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 쓸만 한 활자가 그중 십분의 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7] 그렇다면 이때의 新造木字는 17,200개 규모였던 純祖實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쩌면 顯宗實錄字에 상응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仁祖實錄字와 孝宗實錄字는 비록 명목상으로는 補字의 용도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는 전혀 새로운 목활자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校書館이나 訓練都監에서 가져온 활자는 補字의 용도로 쓰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2.2 다수의 均字板 사용

활자 인쇄는 印版의 수에 따라서 소용되는 활자의 수가 크게 달라진다. 당시 인쇄기술 수준에서 인쇄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均字의 일이었다. 인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印版의 수를 늘리면 補字의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刻字해야 할 규모에 따라 동원할 刻手의 인원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 속에서 활자 인쇄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王室役事가 그렇지만 實錄의 편찬은 특히나 그 인출기간을 가능하면 최대로 단축해야 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문헌의 간행 사업이었다. 열람이 아닌 보존의 가치가 중요시 되었고, 심미적인 관점보다는 본문의 교감이나 보안의 관

5)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2월 20일. 甘結 實錄印出時 所用活字 頑字除良 遺在沒數 當日內上廳事.

6)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7월 16일. 甘結 實錄印出時 所用活字 刓字除良 遺在沒數 當日內進排爲旀 上板事知諸員姓名 幷以牒報事 및 移文 今次實錄印出所用 貴監所在活字 及紙砧砧石 並以用後還送次 急速輸送事.

7)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8월 14일. 移文 實錄印出時 所用活字 令守莊諸員一一考出 則從前木字 或破或刓 可用之字 不及十分之一.

www.kci.go.kr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實錄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上'이나 '王', '大', '之', '曰' 등의 글자는 한 지면에서 많게는 30회가 넘게 등장하기도 한다. 한 지면에서 평균적으로 20회 정도 쓰이는 글자의 경우, 10개의 印版을 사용하면 200개의 활자가 필요하게 된다. 참고로 光海君日記부터 正祖實錄에 이르기까지 實錄 간행 시 사용된 印版, 즉 均字板의 수, 그리고 동원된 均字匠의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均字板과 均字匠의 수

구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景宗修正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均字板	15	23	16	23	23	23	14	4	20	20
均字匠	-	17	7	16	16	12	14	4	19	20

위 표에서와 같이 實錄을 간행할 때 사용된 均字板의 수는 景宗修正實錄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개에서 23개 사이로 많은 편이다. 동원된 均字匠의 인원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均字의 일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均字와 인출의 일이 쉬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문제는 印版과 均字板이 같은 개념인가 하는 것이다.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 實錄廳이 戶曹와 別工作 등에 甘結을 내어 實錄 인출 시 소용되는 均字板을 23立 진배토록 하고,[8] 그 두 달 뒤에 戶曹와 長興庫 등에 甘結을 내어 16일부터 매일 10판씩 實錄을 인출할 것이니, 매 1판 마다 塡空休紙 4량과 初再見精潔休紙 2장, 常墨 6전을 항식으로 진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9]

8)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7월 4일. 甘結 實錄印出時 所用均字板二十三立(每板圍裡內廣一尺三寸五分 長一尺七寸五分) 圍裡次自作板五立半(以下中略) 等物前期造作進排事.

9)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9월 1일. 甘結 實錄今月十六日爲始 每日十板式印出爲去乎 每一板塡空休紙四兩 初再見精潔休紙二張 常墨六戔式 自始役日限印出畢役間 恒

www.kci.go.kr

그리고 석 달 뒤에 다시 甘結을 내어 實錄 인출의 일이 급해서 2판을 가설하였으니, 매 1판에 들어가는 塡空休紙와 初再見精潔休紙, 常墨을 더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10] 이 塡空 및 初再見의 休紙 물량은 '印出諸具'에 나오는 均字板 1판의 소요물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印版과 均字板이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매일 10판씩 인출하겠다고 한 印版의 수와 23立에 달하는 均字板의 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내려 볼 수 있다. 하나는 초기에 활자의 양이 부족해서 均字板을 다 가동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均字板을 채우고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하루에 그 절반 정도인 10판정도만 인출작업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향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선시대에 한 판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인쇄한 책이 册曆이라면 가장 적은 부수를 인쇄한 책은 實錄이라고 할 만하다. 實錄 인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인쇄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꼽아야 할 정도인데, 그러다보니 光海君日記를 간행할 때에는 實錄廳에서 활자를 배열하여 판을 짜는 공역이 극히 어려운데도 필요한 책은 5건에 불과하니, 베껴 쓴다면 물력을 아끼고 일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11]

實錄 인쇄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어느 저작보다도 인쇄해야 할 본문의 양이 많다는 점이다. 宣祖實錄은 221권 116책의 분량이며, 宣祖修正實錄은 42권 8책, 仁祖實錄은 50권 50책, 孝宗實錄은 21권 22책, 英祖實錄은 127권 83책에 달하는 거질의 문헌이었다. 한마디로 印出은 간단한데 均字의 공역은 무엇보다 큰 간행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均字匠의 인원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印出匠은 그렇지

式上下進排爲旀.

10)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12월 13일. 甘結 實錄印出之役 一日爲急 而每日十板式印出爲如乎 今十二月十四日爲始 加設二板爲去乎 每板塡空休紙四兩 初再見精潔休紙二張 常墨五戔式 限畢役間 逐日恒式磨鍊上下進排事.

11) 「朝鮮王朝實錄」 仁祖 11년 12월 25일. 纂修廳啓曰 日記中草 今已撰定畢書 所當依前印出而第見活字排板 功役極重 而分藏之數 元不過五件 頃者一月所印 只戊申數朔日記 力費而事遲 群議皆以爲國朝實錄 未必皆是印本 多以印札楷書以藏云 今亦依此 謄書數三件則物力可省 而完局亦易.

www.kci.go.kr

않았다. 正祖 6년(1782)에 개판한 國朝寶鑑의 경우 印出匠이 校書館의 匠人 4명을 포함해 8명이었으나,[12] 임진왜란 이후 편찬된 제 實錄에서 印出匠의 인원은 다음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명을 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표 2> 印出匠의 인원

實錄	仁祖	宣祖修正	孝宗	顯宗	顯宗改修	肅宗	景宗修正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印出匠	4	2	4	4	4	2	1	4	4	4	4	4

그리고 仁祖實錄과 孝宗實錄, 宣祖修正實錄에 한정해서 이때 동원되었던 均字匠과 印出匠의 명단을 열거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均字匠과 印出匠의 명단

구분	仁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孝宗實錄
均字匠	송의순, 김지영, 기무선, 김대길, 송세민, 한여일, 한의업, 기용석, 곽신, 이점, 양정남, 주립, 남지성, 장대남, 한홍망, 한홍원, 전계업	송의순, 홍몽룡, 기용석, 한의업, 송세민, 주립, 곽신	기용석, 한의업, 홍몽룡, 이응점, 유기상, 권사인, 김준일, 한망, 한검동, 계영, 정두만, 이후명, 함남, 이정익, 조귀벽, 박삼순
印出匠	유순, 기선, 유립, 김익건	유순, 유돌시	유순, 유돌시, 유립, 기선

國役에 동원된 均字匠은 대개 校書館이나 觀象監 등 관아에 소속된 工匠과 京中이나 外方에 거주하는 민간의 私匠으로 구분되는데,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 實錄廳은 먼저 忠翊府에 移文을 보내어 均字匠 김대길의 8월 忠翊衛 당번을 면하고 實錄廳의 일에 전담할 수 있게 할 것부터 요구하였다.[13] 宣祖修正實錄의

12) 「國朝寶鑑監印廳儀軌」 1783. ; 김상호, "國朝寶鑑 1782년 板本의 刻手 硏究," 「書誌學硏究」 44집(2009. 12), 195.

13)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7월 24일. 移文 本廳均字匠金大吉 亦來八月朔 當番忠

www.kci.go.kr

간행기록을 통해 그가 校書館에 소속된 工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實錄廳은 다음 달에 洪淸監司에게 移文을 보내어 道內 洪州에 사는 均字匠 박수길과 전계업을 같은 달 20일까지 올려 보내라고 요구하였다.[15] 해당 儀軌의 工匠秩에는 박수길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전계업의 이름만 나온다. 그의 이름 밑에 '居洪州'라고 해서 거주지가 기입되어 있는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인원은 모두 관아에 소속된 工匠이거나 京中의 私匠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리고 實錄廳은 석 달이 지난 후에도 均字匠의 수가 여전히 부족해서 觀象監에 移文을 보내어 해당 관아에 소속된 均字匠 장대남을 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16] 시기적으로 보아 觀象監에서 册曆의 간행이 마무리되어 이때 특별히 부름을 받은 듯하다. 均字匠의 동원에 관한 해당 儀軌의 기록이 완전하지 않아서 교체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均字匠의 사역인원이 처음보다 뒤로 가면서 더 많았던 것은 확실하다. 이는 孝宗實錄을 인출하면서 나중에 均字板의 수를 늘린 것과도 상통하는 바다.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 동원된 기용석과 한의업은 仁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에서도 그 이름이 보이는 均字匠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宣祖修正實錄의 均字匠 7명 중 홍묭룡을 제외한 6명은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 均字匠으로 동원된 사실이 있다.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의 均字匠 한홍망은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 동원된 觀象監의 工匠 한망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儀軌에서 匠人의 이름이 잘못 기입되는 예는 너무도 빈번하다. 같은 觀象監 소속의 工匠으로는 한검동이 있다.

翊衛是如爲置 依他例頉下 專爲莫重之役事.

14)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丁酉 3월 21일의 甘結과 4월 12일의 甘結에서 實錄廳은 校書館으로 하여금 활자를 수납하고, 수장제원 6인, 均字匠 송의순, 한의업, 기용석, 김대길, 刻字匠 오유진, 김종금, 印出匠 유순, 기선 등을 기송하도록 하였다

15)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8월 11일. 移文 참고.

16)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11월 6일. 移文 참고.

www.kci.go.kr

3. 刻字의 規模

3.1 黃楊木과 自作板의 進排量

조선시대에 목활자는 주로 黃楊木이나 自作板으로 만들어 썼다. 正祖연간까지도 금속활자는 크기를 일정하게 주조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금속활자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목활자가 조판과 인쇄에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당대의 生生字는 역시 그런 금속활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黃楊木을 재료로 만든 목활자라고 할 수 있다.[17]

임진왜란이 끝나고 歷代實錄을 인출할 때에는 옛 甲寅字와 乙亥字를 주워 모으는 한편, 부족한 활자는 黃楊木로 만들어 썼다. 이때 기록을 보면, 校書館이 黃楊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黃海道와 江原道로부터 각기 40條씩 받아 쓴 것으로 나온다.[18]

이후에도 實錄을 간행할 때면 黃楊木이나 自作板을 가져다가 목활자의 補字를 만들었는데, 관련 儀軌에 나타나는 補字用 목재의 實入量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黃楊木과 自作板의 實入量

구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黃楊木(條)	-	150	-	120	50	40	50
自作板(立)	2	18	12.5	16	10	11	6

17) 『朝鮮王朝實錄』 正祖 20년 3월 17일. 大抵前後所鑄鑄字 銅體不一 其擺印也 率用濕紙均黏 每刷一版 另立數人 以朱墨逐勢句抹 猶患欹斜 動費時日 監印諸臣 屢以是爲言 壬子命倣中國四庫書 聚珍板式取字典字本 木用黃楊 刻成大小三十二萬餘字 名曰生生字.

18) 『朝鮮王朝實錄』 宣祖 36년 5월 23일. 春秋館啓曰 校書館見存鑄字 乙亥字厥數稍優 不大不小 正合實錄印出 而字多消融欠缺 非及補刻 則恐未易就緖 校書館近無印書之事 絶乏黃楊木 猝備爲難 黃海平安江原等道產出之處 各擇大四十 隨便斫取 急速上送 下諭于各道監司何如 傳曰 似多 平安道 則雖勿爲不妨.

www.kci.go.kr

위 표에서와 같이 黃楊木이나 自作板의 實入量은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가 가장 많았고,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는 그 다음이었다. 歷代 實錄을 간행할 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條를 받아썼으니, 세 번째 정도 된다고 하겠다.

본래 黃楊木은 다량으로 진배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그 일을 맡은 貢人들이 별도로 그것을 사서 바친다고 불만이 많아서 英祖 연간에 한 株의 값을 1石 10斗로 정하고, 50株에 한정해서 그 값을 宣惠廳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19] 여기서 條는 株와 같이 크기가 일정치 않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는 단위로 짐작되며, 1立은 10尺에 해당한다.

다만 光海君日記와 宣祖修正實錄을 간행할 때에는 黃楊木이 아닌 自作板만으로 목활자의 補字를 만든 것으로 나타난다. 儀軌의 기록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外方에 黃楊木을 진배토록 하는 것은 민폐가 된다는 戶曹의 건의에 따라 校書館이 가지고 있던 自作板으로 만들어 썼고,[20] 후자의 경우 역시 校書館의 自作板을 수시로 가져다 썼던 것으로 나온다.[21] 이는 무엇보다 補字의 양이 많지 않아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自作板만으로 그 수요를 감당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黃楊木을 가장 많이 쓴 것은 仁祖實錄 때의 일이었다. 이때 實錄廳은 實錄을 인출할 때 필요한 補字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江原監司에게 移文을 내어 黃楊木 40條를 상송하도록 주문하였다.[22] 이는 實錄廳이 外方刻手를 동원하는 문건을 발한 때보다 8개월이나 앞선 시점이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實錄廳은 다시 江原監司에게 移文을 내어서 80條의 黃楊木을 더 진배하도록 요구하였

19) 『朝鮮王朝實錄』 英祖 36년 2월 6일. 黃楊木自多進排 而貢人以全爲別貿稱冤 參互曾前卜定之數 與會減之價 每株定價一石十斗 以五十株酌定 自惠局給價 此外依前別貿好矣 上許施.

20)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癸酉 9월 25일. 牒呈 近日外方卜定 必有民弊是置 自作板則校書館良中 多在爲有置如 或自作板以用下 則外方無卜定之弊爲置 相考行下事.

21)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丁酉 5월 17일. 今此實錄印出時 補字所用黃楊木 分定於外房方極爲有弊 其代自作板二立 姑先進排爲旀.

22)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辛卯 8월 1일. 移文 今此實錄印出時 闕字補字次 以黃楊木四十條 爲先斫伐上送事.

www.kci.go.kr

다.[23] 처음에 올린 40條는 이미 다 썼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로써 본다면 당시 補字의 규모는 實錄廳이 당초 예상한 것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儀軌의 '實入'에 江原道가 올린 黃楊木은 모두 150條인 것으로 나온다. 기록이 자세하지 않은데, 江原道가 이후 30條가 더 올려 보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黃楊木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仁祖實錄 때 다음으로 黃楊木을 많이 쓴 것은 孝宗實錄 때의 일이었다. 實錄廳은 補字를 만드는데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江原道에 移文을 내어 黃楊木 160條를 보내도록 하였다.[24] 實錄廳이 外方에 刻手를 동원하는 문건을 발한 시점보다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앞서지 않는 시점이었다. 이는 江原道로부터의 黃楊木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刻手의 동원시점이 너무 일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校書館에서 自作板을 가져다가 補字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仁祖實錄 때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넉넉히 요구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해당 儀軌의 '實入'을 보면 단지 120條만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이듬해 2월의 承政院日記를 보면, 實錄廳이 사용하고 남은 草注紙 37卷과 黃楊木 40條를 戶曹에 보내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25] 따라서 江原道는 당초 요구된 대로 160條를 實錄廳에 올렸고, 補字의 일은 실제 120條의 규모로 끝이 났으며, 나머지 黃楊木은 戶曹로 옮겨졌을 당시의 사정을 헤아려볼만 하다.

앞서 경자년 10월에 實錄廳은 戶曹와 校書館에 甘結을 보내어 實錄을 인출하는데 활자가 더욱 심히 부족하니 刻字에 소용되는 自作板 3立을 바로 진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26] 江原道가 해당 물량을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은 듯하다. 그리고

---

23)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6월 21일. 移文 今此實錄印出時 所用補字此 以當初上送黃楊木肆拾條 今已盡用 前頭所入之數 亦未知幾許是在果 姑先黃楊木八十條 到關卽時 所產各官良中 嚴明分付 罔夜上納.

24)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6월 11일. 移文 今此實錄印出時 所用黃楊木 (中略) 黃楊木壹佰一六拾條.

25) 「承政院日記」 顯宗 2년 2월 25일. 草注紙實用二百六十三卷 所餘三十七卷 黃楊木餘者四十條「缺」二十斤 竝送于戶曹之意 敢啓.

www.kci.go.kr

이렇듯 인출 중간에 활자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均字板의 수를 늘림으로써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2 刻字匠의 人員

조선시대에 實錄廳은 實錄을 간행할 때에는 그 인쇄수단이 금속활자이건 목활자이건 간에 부족한 활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먼저 소용되는 목재를 진배토록 하였고, 이어 솜씨 좋은 刻手들을 동원하기 위해 해당 관아 및 外方에 문건을 발송하였다. 여러 實錄 儀軌에 기입되어 있는 刻字匠의 人員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刻字匠의 人員

구분	仁祖 實錄	宣祖 修正 實錄	孝宗 實錄	顯宗 實錄	顯宗 改修 實錄	肅宗 實錄	景宗 修正 實錄	英祖 實錄
인원	15	3	19	2	3	2	1	4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인 19명의 刻手가 동원되었으며,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에는 다음으로 많은 15명의 刻手가 동원되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인원이 두서너 명에 불과하다. 이후 正祖實錄을 간행할 때부터는 그 인원이 다시 10명 이상으로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추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仁祖實錄과 孝宗實錄, 그리고 宣祖修正實錄을 간행할 때 동원된 刻字匠의 명단은 다음 <표 6>과 같다.

26)『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庚子 10월 4일. 甘結 實錄印出時 活字尤甚不足 印出之役萬分緊急 刻字所用自作板三立 當刻內急急進排爲旀.

www.kci.go.kr

<표 6> 刻字匠의 명단

구분	仁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孝宗實錄
이름	오유진, 김종금, 김애립, 승승엄, 정시우, 이생립, 승신기, 김경록, 승운제, 승각행, 승의순, 승인신, 강영록, 승유선, 승탄묵	김종금, 양명립, 김애생	김종금, 김애립, 한두성, 유 남, 김신기, 최만원, 김익천, 승옥현, 승덕희, 승수현, 승의수, 승민영, 승승순, 승상훈, 승혜겸, 승신유, 승성규, 승천진, 승청탁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인원 37명의 刻字匠 중에 승려 신분의 刻手는 19명으로 그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 번의 實錄 간행사업에 모두 참여한 刻字匠은 김종금과 김애립 두 사람으로 宣祖修正實錄의 刻字匠 김애생은 김애립의 오기로 판단된다.

3.2.1 仁祖實錄

仁祖實錄을 간행하기 위해 實錄廳은 임진 2월에 校書館으로 하여금 활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 한 달 뒤인 3월에는 外方의 監司에게 移文을 내어 刻手를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그 때 문건으로 통보한 이름은 목천의 僧刻手 승엄을 비롯해 충원의 僧刻手 현철, 전주의 刻手 정시우, 태인의 刻手 이생립 등이었다.[27] 이들은 모두 그 이전의 사역에 동원된 적이 있는 善手였을 것이다.

해당 儀軌의 '工匠秩'을 보면, 승엄과 정시우, 이생립 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현철의 이름은 빠져 있다. 아래 5월의 문건을 통해서 그 대신 신기가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刻手 중 어느 한 사람은 사역하는 도중에 병을 얻어 西活人署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28]

實錄廳은 5월에 全南과 洪淸 監司에게 다시 移文을 보내어 京中의 刻手는

27)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3월 24일. 移文 先王朝實錄 今方印出 而刻字匠尤甚不足 莫重實錄印出 不可遲滯是置 道內木川僧刻手勝嚴 忠原僧刻手玄鐵 全州刻手鄭時遇 泰仁刻手李生立等 到關卽時 罔夜起送.

28)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4월 22일. 甘結 外方刻手一名捉來使役爲如乎 重得可疑之病 救療無人 出送本署爲置 別定巫女十分救療事.

www.kci.go.kr

서너 명에 불과해서 부득이 전주의 刻手 정시우, 태인의 刻手 이생립, 목천의 僧刻手 승엄, 충원의 刻手僧 신기 등이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역기간을 두 달로 한정해서 교체하려고 하니, 전주의 刻手 김경록, 부안의 僧刻手 각행, 괴산의 僧刻手 운제, 단양의 刻手 이철 등을 5월 말까지 올려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29]

농번기에 오래 잡아두면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 교체의 이유였다. 하지만 굳이 刻僧까지 포함한 것을 보면 당시 刻手 인력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儀軌의 '工匠秩'에 이철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명단의 기입순서로 봐서 청주의 刻手僧 의순이 대신 투입된 것이 분명하다.

實錄廳은 다시 7월에 全南과 洪淸 監司에게 移文을 내어서 8월 1일에 刻手를 교체할 수 있게 고부의 僧刻手 인신, 구례의 刻手 강영록, 청안의 僧刻手 사운, 청주의 僧刻手 유선 등을 그믐날까지 올려 보내도록 주문하였다.[30] 이때는 사운 대신 탄묵이 올라온 듯하다. 해당 儀軌 '工匠秩'의 刻字匠 명단이 일관되게 京工匠을 앞으로 하고, 外方刻手는 뒤로 해서 그 회차에 따라 기입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이와 같이 회차에 따라 補字, 즉 仁祖實錄字를 새겨내기 위해 동원된 刻字匠의 명단을 열거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회차별 刻字匠의 명단

구분		1차	2차	3차	인원
		4월-5월	6월-7월	8월-9월	
外方刻手	全南	정시우, 이생립	김경록, 각행	인신, 강영록	6
	洪淸	승엄, 신기	운제, 의순	유선, 탄묵	6
京刻手		오유진, 김종금, 김애립			3

29)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5월 16일. 移文 外方匠人當此農月 久留京中 似涉寃枉 是乎等 以限二朔遞易事 已爲完定爲有置 全州刻手金景祿 扶安僧刻手覺行 槐山僧刻手 雲際 丹陽刻手李哲等 來六月初一日交替次 以別定色吏 今五月三十日及良 本廳現身到付考准事.

30)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壬辰 7월 10일. 移文 爲相考事 今此實錄印出時 外方刻手兩朔交替事 前已行會爲有如乎 來八月初一日替易次 以古阜僧刻手印信 求禮刻手姜永祿 淸安僧刻手士云 淸州僧刻手裕禪等 別定色吏 今月晦日及良 京現受到付考准事.

www.kci.go.kr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 세 차례에 걸쳐 동원된 外方刻手의 인원은 모두 12명이다. 京刻手 3명의 사역기간은 자세하지 않으나, 校書館 소속의 工匠으로서 초기에 투입되어 끝까지 남아 일을 마무리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仁祖實錄字를 새겨낼 때 刻字匠은 회차별로 작업인원이 최대 7명을 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동원된 刻手의 인원만으로 補字의 규모를 헤아리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2.2 孝宗實錄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 實錄廳은 먼저 訓練都監과 校書館으로 하여금 實錄인출에 소용되는 활자를 진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수장들이 활자의 상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그 활자들은 혹은 부서지고 혹은 닳아져서 쓸 수 있는 것이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31]

따라서 實錄廳은 外方의 全南과 忠洪에 문건을 보내어 京中의 刻字匠으로는 수가 부족하니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 동원되었던 刻手를 8월 5일까지 올려 보낼 것을 주문하였다. 목천승 승엄, 괴산승 운제, 충주승 신기, 탄연, 서원승 의수, 유선, 전주 정시우, 노경록, 태인 이생립, 부안승 각행, 고부승 인신, 구례 강영록 등 12명이 그들이었다.[32] 하지만 해당 儀軌의 '工匠秩'에 그들의 이름은 전무하다. 이미 오래 전 일이어서 모두 다른 사람들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外方의 刻手들이 올라왔을 때 刻字의 일은 바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김만억 등 8명의 刻手는 等狀을 내어 대기한 기간의 식량을 국휼 때에 의거해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實錄廳은 戶曹로 하여금 그들에게 10일치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33] 그들이 刻字의 일을 시작한

31)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8월 14일. 移文 實錄印出時 所用活字 令守莊諸員一一考出 則從前木字 或破或刓 可用之字 不及十分之一.

32)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7월 19일. 實錄印出 自八月初 將爲始役 而京中刻字匠尤甚不足 莫重印出之役 不可一日遲滯乙 仍于庚寅年實錄印出時謄錄 付刻手等抄出關後祿爲去乎 來八月初五日及良 京現受到付考准事 各其所居官良中 罔夜申明知委施行爲乎矣 其中有頉者 則自其官他刻手善手者定送爲旀.

www.kci.go.kr

것은 8월 11일에 이르러서였다. 그리고 네 명의 京刻手가 합류한 것은 이보다 한 달 이상 늦은 9월 16일의 일이었다.[34]

10월에 이르러 實錄廳은 忠洪監司에게 문건을 보내어 이미 外方刻手들이 일한 지 석 달째가 되었고, 얇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엄동에 사역하기 어려우므로 교체할 刻手 6명을 10월 말까지 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35] 仁祖實錄을 간행할 때에는 농번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때는 추위를 이유로 해서 外方 刻手들의 사역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 하겠다. 12월 초 刻字의 일을 마무리할 시점에는 13명의 刻字匠 중 2명의 外方刻手를 먼저 방송하였다.[36]

이와 같이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에 補字를 새기는 일은 일차로 8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外方刻手 8명이 감당하였고, 이차로 9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는 京刻手 4명과 언제 충원되었는지 불분명한 外方刻手 1명이 추가되어 모두 13명의 刻手가 그 일을 진행하였고, 삼차로 12월 1일부터는 外方刻手 2명을 뺀 11명이 그 일을 마무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 동원된 刻字匠은 전체인원이나 동시작업인원 모두 仁祖實錄 때와 비교해서 많았다. 이는 補字用 목재의 實入量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刻字의 규모를 헤아릴 때 동원된 刻手의 人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현전본의 형태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바다.

---

33)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8월 9일. 移文 全南道刻手 金萬億等 八名等狀內 矣徒等依本道分付本廳設事次 以裹糧上來 旣已現身爲白有如乎 時未始役 遐方之人連命爲難 極爲憫望爲白旀 依國恤時例 待令料上下 以爲連命之地事行下爲只爲.

34)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9월 17일. 移文 京刻手匠四名 及諸色工匠都助役五名等 今九月十六日 爲始赴役.

35)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10월 17일. 移文 外方刻手等 行會赴役於本廳者 已至三朔 薄衣上來之人 勢難仍存嚴冬 使役交替次 以道內近京之邑 分定善手刻手六名 今十月晦日及良 知委起送.

36)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庚子 12월 1일. 移文 本廳諸色工匠中 刻字匠十三名內 外方刻手二名 今月初一日姑先放送.

www.kci.go.kr

4. 結 語

儀軌의 기록을 중심으로 仁祖 및 孝宗 實錄字의 刻字 要因과 規模에 관한 사실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仁祖 및 孝宗實錄字는 校書館이나 訓練都監에서 사용된 기존의 활자에 補字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기존 활자의 보존상태 등이 좋지 않아서 刻字는 전혀 새로운 활자의 제작이라고 할 정도로 대량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기존의 활자가 오히려 그 補字用으로 쓰이게 되었다.

둘째, 仁祖 및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에는 인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3개의 均字板을 사용하였다. 그로 인해 동일한 글자의 활자 수가 더 많이 소용되게 되었으며, 補字 및 刻手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었다.

셋째, 均字匠은 기본적으로 校書館 소속의 工匠들로 충원되었고, 그 수요에 따라서 觀象監 소속의 工匠이나 外方의 私匠들이 동원되었다.

넷째, 補字의 재료로는 주로 黃楊木과 自作板을 사용하였다. 黃楊木은 사전에 江原道 등에 문건을 보내어 進排토록 하였고, 自作板은 補字를 만드는 중에 수시로 校書館에 甘結을 내어 가져오도록 하였다. 仁祖 및 孝宗實錄을 간행할 때 補字用으로 쓰인 이들 목재의 양은 어느 實錄을 간행할 때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당시 補字의 刻字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섯째, 仁祖 및 孝宗實錄字를 刻字하기 위해 동원된 刻字匠은 다른 實錄을 간행할 때보다 많은 15명과 19명이었다. 이들은 校書館에 소속된 서너 명의 工匠을 제외하면 全羅道와 忠淸道의 外方 刻手들이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刻僧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回次에 따라 동원되었으며, 동시 작업인원은 전자의 경우 7명, 후자의 경우 13명이 최대였다. 단순히 동원된 刻字匠의 인원만으로 刻字의 규모를 헤아리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景宗大王修正實錄儀軌」.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純宗大王實錄儀軌」.
「承政院日記」.
「英宗大王實錄廳儀軌」.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正宗大王實錄刪節廳儀軌」.
「朝鮮王朝實錄」.
「顯宗改修廳儀軌」.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김상호. “國朝寶鑑 1782年 板本의 刻手 硏究.”「書誌學硏究」44輯(2009. 12). 193-209.
千惠鳳.「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2006.

www.kci.go.kr

www.kci.go.kr